



# 뜨거운 구도열기에 '톡' 오도송 터져 나올 듯

은혜사 운부암 운부난야에서 안거중인 스님들의 사시에불 모습. 안거철 선방 대중들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참선 그 자체다.

## 탐방 하안거 해제 앞둔 '운부난야'

팔공산 은혜사에서 3.5km 위쪽에 덩그러니 떠 있는 운부난야(雲部蘭野). 팔공산 주맥이 줄기차게 뻗어내려 지혈을 못쳐 놓은 곳. 좌청룡 우백호가 튼튼하게 의호하고 앞쪽에 눈을 거스르지 않는 높이로 코끼리 형상의 산이 버티어 지혈을 지켜주는 천하에 둘도 없을 도량. 팔공산 운부암(雲浮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은 피아별 아래 노곤해진 한가로운 풍경화가 아니라 닳더위보다 더 뜨거운 구도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선불(禪佛) 도량의 진경이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하안거 해제 날. 운부난야의 선사들은 올 여름 안거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정갈한 도량에서는 발자국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 뒤꿈치를 들어야 했다. 땀을 닦아내며 보화루에 앉으니 선계(仙界)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온몸의 더위를 씻어 주었다. 정면은 보물 514호 청동 보살좌상이 모셔진 원통전이고 우측은 운부난야, 선방이다. 왼쪽은 요사채인 쉼터에 벽에 달마 대사가 그림으로 화현해 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 '달마 스님은 참선 중, 선원 스님들도 공부 중. 참배는 조용하...' 딱, 딱, 딱!

다시 물이 흐르듯 움직였다. 점심공양을 하고 포행을 즐기는 두 시간. 선사들은 모두 각자 행동했지만 도량 안에서는 각자의 행동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어지는, 전체 속의 각자일 뿐이었다. 커다란 푼막이 울린 것은 오후 2시 정각. 스님들은 호미와 팽이 등을 들고 마당가로 모였다. 잡초를 뽑기에 여념이 없었다.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자 역시 손사래를 친다. 12명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열들인 듯 하나인 듯 거스름이 없는 이유는 뭘까? 적게는 30안거에서 많게는 80안거(40년)를 일념정진 해 온 구참수좌들이기 때문이다. 신참선객일수록 대중이 많은 처소에서 대중의 정진력에 동화되는 것이 좋고 구참

일수록 단출한 처소에서 정진해야 화두를 순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백운심처(白雲深處)의 운부난야. '북마하 남운부'란 말이 있다. 옛날부터 최고의 수행처 하면 북쪽에서는 금강산 마하연을 남쪽에서는 팔공산 운부암을 꼽았다. '영남의 3대 도량'으로 선산 도리사와 팔공산 선전암 그리고 현종 도성암을 꼽는데, 운부암이 선원을 열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그 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 성철 스님은 이 도량에서 홀로 한 철 수행을 하고 두 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항곡 스님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주고 떠났는데 "내 공부는 여기서 끝났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성철 스님 뿐이 아니다. 동산

운봉 경봉 항곡 한암 청담 스님 등 선지식들이 두루 거쳐 간 수승한 도량이다. 그러나 48년이나 선방 문이 닫혀 있다가 1998년 지금의 선원장 불산 스님이 일타 스님을 모시고 다시 문을 열어 12-15명의 구참수좌들이 활인감을 버리는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운부난야는 두 가지 별명을 갖고 있다. 우선 '망각의 도량'이다. 선원장 불산 스님의 설명이 명쾌하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와서 두어 달 살면 건망증 환자가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야 공부가 되잖아요. 우리 공부란 게 있는 공부거든요" 한 곳으로 마음이 갈팡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두가 성성하여 일상의 행동들은 망각의 강물에 던져지는 것이다. 어느 때 그 강물마저 있을 날 오도송이 톱 마른벼락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또 하나의 별명은 '판검사 도량'. 선원이 문을 닫고 고시생을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독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했다. 박철언(朴 哲言) 정무장관을 비롯해 48명의 판검사를 배출한 도량이다. 세속 공부가 그렇게 잘 되는 곳에서 출세간의 공부가 안 된다면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운력이 끝나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청소를 하고 선방도 청소했다. 청소도 다 끝난 듯인데, 선방에 나오는 스님이 없었다. 사진이라도 한 컷 찍고 싶은 욕심에 한 스님에게 물었다. "오늘은 참선 안 하십니까?" "운력 하면서 참선 다 했는데 또 무슨 참선?" "선방에서..." "아, 앉아서 하는 참선은 저녁에나 하지..."

## 운부선함록(雲浮禪庵錄)

-변윤-

구름이 내려와 산이 된 산에는 불가사의한 꽃이 피고 산색(山色)따라 꽃이 진다네 낭랑한 새소리, 물소리 모두어 지하수가 샘솟는 그 명지에 운부난야가 있네 항상 흰구름으로 떠 있는 보화루 천신(天神)들이 내려와 입정(入定)에 든 선정삼매(禪定三昧)의 연꽃물에는 하안거(夏安居) 눈 푸른 선승들 물구나무 서거나 거꾸로 앉아 좌선 중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상(實相)이라 하며 의정(疑定)의 물결 밑으로 한낮의 뜨거운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마음의 해저 밑을 서늘한 달빛이 꿰뚫고 있네 알 길 없는 구름 길 안온한 선선의 경지 사시사철의 흐름조차 있고 사네 구름 부리 밀 선당(禪堂) 가까이 쏟아지는 여울물 소리 바람이 일고 꽃이 피고 흰 구름 따라 선객(禪客)이 모여들고 산색이 저물면 꽃이 지네

■ 운부난야에서 하안거를 나고 있는 시인 변윤(변승) 스님을 만나 "공부가 잘 되십니까?" 물었다. 스님은 대답 없이 가벼리더니 잠시 후 다가와서 불속 종이 한 장을 내놓았다. 시인은 시로 대답하는 것이 제격이다.

## 12선사들 일념정진...말없는 눈빛으로 "사진 찍지 마시오" 포행·운력 모든 행동 열들인 듯 하나인 듯 거스름 없어 성철·동산 스님 등 두루 거쳐... '판검사 도량'으로도 유명



운력도 참선이다.



방충망 안 정갈한 좌복도 참선이다.

# 래아영가 49재 엄마, 아빠 참회기도 안내

(2007년 대학입시 수험생 기도와 구병시식해드립니다)

망태이는 낙태된 생명입니다. 부모의 업으로 태어나지 못한 생명입니다. 그 업보로써 태아영가와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두은 태속에서 쓸쓸히 사라지던 태아영가를 위하여 다음생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안내** ■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양력 9월 21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양력 10월 21일 - 일요일  
기도는 입재 / 3재 기도: 양력 9월 23일(일) / 5재기도: 양력 10월 7일(일) - 관육  
7재 기도: 양력 10월 21일(일) - 회향

**준비물** ■ 분유(우유), 과일, 사랑, 초코파이 등 (5재 관육에 필요한 태아 비누,수건,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 구담사 찾아오는길

- 1호차 : 조계사 앞(7:00) ⇒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 길음역 10번 출구(7:10) ⇒ 미아삼거리역1번출구(7:20) ⇒ 수유역1번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티티빌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광명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 4호차 : [지하철2호선] 광명역 테크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장거장(8:05) ⇒ 구리역앞 GS백화점 옥고빌(8:20) ⇒ 구담사
- 5호차 : [지하철1, 2호선]신도림역 1번출구 옥고건너 푸르지오앞(06:30) ⇒ [1호선]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06:35) ⇒ [5호선]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 ⇒ 한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티티빌(08:10) ⇒ 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따라 내려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